

특집

전자책, 새로운 희망의 문 앞에 서다



글 | 신정환

상명대학교중앙도서관 사서
smshin97@smu.ac.kr

“선생님, 전자책 서비스 관련해서 전화 왔습니다.”

전자책 단말기 대여서비스와 관련하여 매주 전화를 받아오던 터였다. 속으로 ‘이번 주도 역시 거르지 않고 문의전화가 오는구나’ 하며 조교로부터 돌려 받은 전화에 이번에는 글을 써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그동안 전자책 서비스 관련 문의전화를 받을 때마다 2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전자책 활성화 방법이나 전용단말기 대여서비스에 대해 내가 알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입이 아프게 풀어 냈던 필자지만, 막상 관련 글을 써 달라는 말에 내가 과연 전자책에 대한 글을 쓸 정도의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 ‘바빠서 쓸 시간이 없을 거 같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다 문득, 도서관 담당자들과 조금이나마 전자책 서비스 정책수립과 관련한 고민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들려 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전자책 서비스 및 전용단말기 대여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우리 도서관은 현재 북큐브와 북센, 누리미디어를 통해 약 7,000종의 전자책을 서비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전자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부터라고는 하나 실제 전자책에 대한 많은 관심이 시작된 것은 2007년 후반이나 2008년부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도서관도 이때부터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smu.ac.kr>)를 통해 전자책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전자책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도서관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도서관들이 전자책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

며 서비스를 시작한 지 벌써 3~4년이 흘렀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지금도 전자책 서비스를 홍보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아직도 이렇다 할만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전자책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서관 홈페이지나 관내 게시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오고 있고, 매 학기마다 진행되는 도서관 이용교육을 통해서도 전자책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또한 매 해마다 시행하는 '대출상' 또는 '다독상' 수상대상에 전자책 분야를 별도로 추가해서 시상도 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반응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던 수준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현장에서 사서들이 전자책 서비스를 시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정작 문제해결 및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문제들은 따로 있지 않았나 싶다. 지난 몇 년간 전자책 서비스를 운영해 오면서 전자책 주변 환경에 산재해 있는 근원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전자책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높고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먼저, 전자책에 대한 정체성이다. 과연 전자책을 도서로 보고 자산으로 등록을 할 것인가? 우리 도서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서관 담당자들이 많은 고민을 했고, 이와 관련된 많은 세미나와 토론회가 있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있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정의를 보면 전자출판물은 분명한 도서지만 많은 도서관들이 전자책을 비도서로 분류하고 있으며, 도서나 비도서와 상관없이 유형물만을 '자산취득'에 포함하고 있어, 교내 서버에 구매한 전자책 콘텐츠를 별도로 담아 서비스하거나 시디백업본과 같은 유형물을 따로 받아 등록하고 보관하고 있다. 이렇듯 전자책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편견은 도서관 내 예산배정 비율이나 전자책 서비스 운영 및 이용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출판유통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전자책이 전 세계 도서의 출판 및 유통시장을 송두리째 바꿀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변화로 인한 출판사들의 입지 축소에 대한 불안감, 온라인 출판유통에 대한 작가들의 인식 및 불안한 온라인 유통 보안 문제 등으로 인해 여전히 물리적으로 출판되는 책의 수에 비해 제작되는 전자책의 수와 분야는 너무나 한정되어 있다. 생산되는 전자책은 주로 문학과 경제 분야 등을 중심으로 구축되다 보니 전공 및 학술지원을 우선하는 대학도서관의 경우 더욱 더 전자책 서비스의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전자책을 생산하는 주체가 출판사가 아닌 유통사나 제작사라는 것이다. 전자책 유통사들에 의해 전자책은 단순히 종이책을 전문적이고 추가적인 편집 등의 작업 없이 디지털로 변환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됐고,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 및 가공보다는 단순 수적 증가만을 중요시 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대형유통사의 부재 및 폐쇄성이다. 모든 유통사는 고유의 DRM 및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며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전용 리더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전용단말기를 사용해야 읽을 수 있다. 읽고자 하는

책이 여러 유통사에 걸쳐 서비스 되고 있을 경우, 각각의 리더 프로그램이나 단말기를 구비해야 읽을 수 있다는 말이다. 외국의 경우 아마존과 같은 대형 유통사가 있어 위에 언급할 사항들을 완벽하게는 아니라도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나 국내의 전자책 시장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아직도 많이 열악한 상황이다.

지금 살펴본 문제들은 사서와 같은 현장 실무자들이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이다. 대부분이 서비스 단의 문제가 아닌 생산이나 유통구조에서 기인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앞으로의 정확한 진행 결과를 예측할 순 없지만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만큼의 행운과 호재들이 최근 1~2년 사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설레이는 움직임

지난 2009년 11월 말 경에 아이폰이 국내에 첫 선을 보이면서 여러 분야에 걸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는 다르겠지만, 스마트폰 열풍은 개인적으로 자동차, TV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물건들이 세상에 처음 나온 때와 마찬가지로 인류역사에 획을 그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건이라 말하고 싶다. 하드웨어 스펙만 보서는 이미 우리나라도 전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스마트폰을 출시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특별함이 없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소홀히 해왔던 사용자 중심의 풍부한 소프트웨어 시장을 적용함으로써, 잘 발달된 국내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급속도로 통신 및 유통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진행됐다. 끊임없이 개발되는 앱들을 통해 스마트폰의 영역은 끝없이 확장되어 갔고, 그럴수록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더 많은 것들을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해결하길 원했다. 처음에는 주로 스마트폰을 게임, 영화 및 음악감상, 인터넷 서핑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던 이용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보와 지식의 소비쪽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해 후반 갤럭시탭과 아이패드 같은 넓은 화면의 스마트 디바이스 출시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다.

우리 도서관은 지난 2010년 10월 전자책유통사인 북큐브와 협정을 맺고 30대의 전자책전용단말기 무료대여서비스와 애플과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모바일서비스를 전면 지원함으로써 이런 상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약 6개월간의 이용통계를 살펴보면 적게는 6배에서 많게는 9배까지 전자책 이용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기 중 전자책 전용단말기 대여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

스마트 디바이스와 전자책 전용단말기를 통한 전자책 이용 시 모두 각각의 뚜렷한 개성들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는 선명하고 다양한 컬러 효과를 통해 독서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고 빠른 반응 속도와 별다른 추가 기기의 휴대없이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전에 등록된 전자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책을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다는 점은 최고의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선명하고 밝은 화면은 눈을 쉽게 피로하게 하고 배터리를 조기 소진시켜 장시간 독서에 방해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전자책 독서에 집중하기 힘든 것도 단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단점은 추후 스마트패드와 같은 디바이스가 저렴한 가격에 보급되는 시점이 된다 하더라도 도서관이 전자책 서비스 이용증대를 목적으로 스마트 패드 대여 서비스를 시행할 것인지를 망설이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책 전용단말기는 잉크패드를 채용하고 있어 책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독서를 할 수 있다. 잉크패드가 대부분 흑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눈의 피로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배터리 소모량도 아주 적다. 또한 전자책 전용 리더기이다 보니 다른 어느 기능보다 독서를 위한 용도로 이용하기 좋다. 현재 우리 도서관에서 서비스하는 모델(북큐브 B-612)은 특히 홈페이지 상에서 대출받아 놓은 책을 무선환경(Wi-Fi)을 통해 컴퓨터와 별도의 연동 없이 바로 동기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용단말기를 통해 도서를 대출할 수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점과 스마트폰이나 패드와 비교해서 느린 반응 속도, 그리고 터치를 지원하지 않는 점은 단점이라 하겠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여 빠른 실행속도와 괜찮은 수준의 부가기능이 부여된 전용단말기로 발전하고 있고,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가 폭발적으로 보급되는 요즘에도 지속적으로 전용단말기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전자책 서비스를 논함에 있어 전용단말기는 빼고 갈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임에 틀림이 없을 것 같다.

또 다른 큰 변화는 최근 콘텐츠의 생산자가 유통사에서 출판사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중반 중소 규모의 출판사들이 함께 연합하여 한국출판콘텐츠(e-KPC)라는 전자책 제작 및 유통을 대행하는 에이전시를 출범시켰다. 한국출판콘텐츠는 출판사들을 도와 신간, 베스트셀러와 같이 이용자들이 원하는 다양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에 따라 국내 표준DRM 개발 및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의 전자책 대량 보급이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진다.

위에서 언급한 이유 등으로 인해 전자책 유통체계 및 서비스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출판 생태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발전모형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것이며 적절한 가격정책과 정부의 지원, 투명한 유통, 전자책 저작권 보호를 위한 보안 등이 주요쟁점으로 논의되며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책 출판 및 유통시장의 변화로 인해 출판사의 위치 및 역할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고, 출판사가 주축이 되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표준화된 포맷을 개발해서 전자책 제작의 주체가 다양화되고 양질화 되어 전자책의 영역이 더욱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규모 집단 또는 개인이 저자 및 출판사 역할을 하는 개인출판이 활성화 될 수도 있다. 이미 외국에서는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저자들이 직접 전자출판을 하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전자출판의 소규모 및 다양화는 현재 흥미 및 문학 위주로 편

중된 전자책 분야에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공 및 학문 분야와 같은 전문 분야의 전자출판도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출판원가를 조정하여 더 싼 가격으로 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전자책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다. 유통에 대한 물리적 제한이 없어 판매무대가 세계로 넓어질 수 있을 것이며, 전자책이 가진 유통 플랫폼의 특징을 발판으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좋은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전자책 시장은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질의 데이터가 풍부하게 생산될 것이다. 그럼 도서관은 현재의 전자책 서비스 자체의 홍보에 집중된 경향에서 벗어나 많은 콘텐츠 중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선정하고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접근경로를 제공하는 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다시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갖고 있지 않은 이용자에게 전용단말기 무료대여서비스 지원 및 전자책 전용공간 설치 확대를 통해 좀 더 많은 이용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고 다양한 학문의 기회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좋은 서비스에 맞는 적절한 홍보와 이용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특히 우리 도서관은 1회성 홍보행사보다는 일정기간 동안 도서관 로비에서 전자책 업체와 협력하여 이용교육 및 홍보행사를 진행한 결과 이용자들의 많은 호응과 관심을 얻을 수 있었다.

지금은 모든 것들이 급격히 변화하는 혼란스러운 단계이지만, 지식과 콘텐츠를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는 도서관 사서로서 전자책 서비스를 둘러싼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된다. ³⁶